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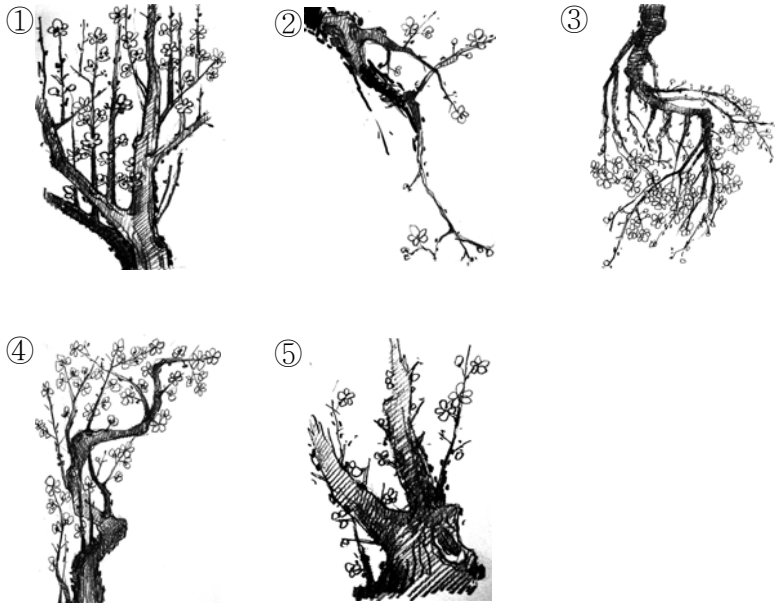
3

1

- 문제지와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사의 질문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2. (물음) 두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 ② 머뭇거리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 ③ 성공하려면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 ④ 흐르는 강물처럼 순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
- ⑤ 위기에 처했을 때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3. (물음) 방송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누비 바느질법은 여러 용품에 활용되어 왔다.
- ② 전통 누비 바느질법은 최근에 들어 재현되었다.
- ③ 누비 바느질은 옛 여인의 성품에 영향을 끼쳤다.

- ④ 누비옷은 열 보존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⑤ 전통 누비는 선을 일일이 그려서 바느질을 했다.

4. (물음) 출연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포터(여) : 일상적인 인사를 자연스럽게 화제와 연결짓고 있다.
- ② 연구원(남)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의사(여) :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들어 발병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생산자(남) : 신제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
- ⑤ 학생(여) : 개인적 경험을 예로 들면서 대상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물음) 남성 토론자의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1점]

- ① 상대방과의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논리적 설득에 말려들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⑤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6. (물음) 토론을 들은 청취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반 제작자들이 불법 내려받기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줄겠군.
- ②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군.
- ③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인터넷 사용 요금을 고려할 필요는 없겠군.
- ④ 인터넷 접속 장애가 줄어들게 된다면 편리한 제도라고 봐야겠군.
- ⑤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이 줄면 인터넷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겠군.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만화를 보고 설정한 글쓰기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점]



- 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
- ②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 ③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④ 화해는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 ⑤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8. 다음 의견에 대해 <보기>의 '조건'에 맞게 표현한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
오늘날 광고는 상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보 기>—
[조건]
1.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2.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3.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① 광고는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광고가 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고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쓸모 있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 ②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광고가 욕망을 자극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쉽게 지갑을 열지는 않는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광고의 허구성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 ③ 광고는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광고는 소비 욕구를 자극하여 불필요한 상품을 충동 구매하게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광고에 담긴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 ④ 광고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현대인들을 욕망에 집착하는 존재로 변질시킨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소비자를 범죄의 세계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을 주제로 한 공익 광고를 제작해야 한다.
- ⑤ 광고는 소비자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불필요한 소비 풍조를 조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행위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광고의 속성을 주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9. '쌀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해 보았다. 개요의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주제문을 수정함
쌀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논지를 구체화함
소비자 기호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능성 쌀을 개발한다.

① 주제문 : 쌀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은?
서론 : 쌀 소비 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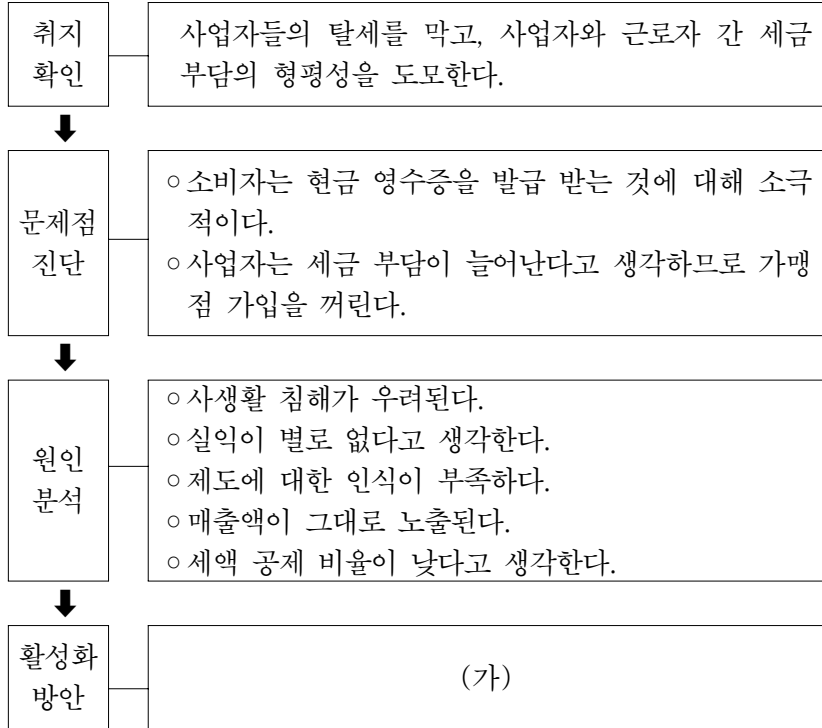
1. 쌀 소비 감소의 원인
 - (1) 소비자 측면
 - ㄱ. 먹을거리가 다양해졌다.
 - ㄴ. 식생활이 서구화되었다.
 - ㄷ. 쌀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 ㄹ. 쌀 소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 (2) 공급자 측면
 - ㄱ. 소비자의 취향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 ㄴ. 인스턴트 음식 문화가 확산되었다.
 - ㄷ. 쌀 유통 관리가 비과학적이다.
2. 쌀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
 - (1) 다양한 방법으로 쌀 소비 운동을 전개한다.
 - (2) 소비자의 취향대로 쌀을 개발한다.
 - (3) 고품질 쌀을 공급하고 유통 체계를 정비한다.

결론 : 쌀 소비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한다.

- 논지 전개상 어울리지 않음 위치를 서로 바꾼다.
- 논지를 보강하기 위해 항목을 추가함
ㄹ. 농가 수입이 적어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 저하되었다.
- 논지 전개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함
(3) 쌀 품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
(4) 향미적인 쌀 유통 체계를 갖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현금 영수증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글쓰기 계획을 세워 보았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출액이 투명하게 밝혀진 사업자에게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 ②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홍보한다.
- ③ 사업자의 가맹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 공제 비율을 조절한다.
- ④ 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대안을 강구한다.
- ⑤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사업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1. <보기>는 '봄의 아름다움과 활력(活力)'이라는 주제로 쓴 수필의 일부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나는 봄을 좋아한다. 그래서 늘 봄이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올해도 나는 벽찬 가슴으로 봄을 맞이했다. 봄은 산에서부터 내려왔다. 집 뒤 ○○산은 쉬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무는 가지마다 움을 ㉡틔우며 자신들의 한 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아름다움으로, 청초함으로 자신들을 ㉢드러낼는지……. 아마도 머지않아 마른 가지는 온통 초록빛의 옷으로 치장할 것이다. ㉣늘 봄비는 등산객들을 보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생각하곤 한다. 봄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싱그러움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 준다. ㉤봄의 향기를 맡고 봄의 소리를 들을 때 나는 그 봄과 함께 새로운 삶의 힘을 얻게 된다.

- ① ㉠은 필요 없는 구절이 들어 있으므로 '나는 봄을 벽찬 가슴으로 맞이했다.'로 고친다.
- ②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틔우며'로 바꾼다.
- ③ ㉢은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드러낼런지'로 바꾼다.
- ④ ㉣은 주제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삭제한다.
- ⑤ ㉤은 서술어 사용이 경제적이지 못하므로 '봄의 향기와 소리를 들을 때'로 고친다.

12. <보기>의 우화를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로 창작한 다음, 창작 의도를 고려하여 미흡한 장면을 보완하려고 한다. 그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어리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러자 수많은 '까마귀들'이 그것을 빼앗아 먹기 위해 달려들었다. 까마귀들은 고기를 물고 달아나는 까마귀를 뒤쫓아 마구 쫓아댔다. 견디다 못한 까마귀는 물고 있던 고기를 땅에 떨어뜨렸다. 까마귀들은 일제히 땅으로 떨어진 고기 한 점을 향해 앞을 다투어 날아갔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자 이윽고 파란 하늘에는 까마귀만 남게 되었다. 까마귀는 고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부리와 깃을 세우며 다투는 까마귀들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휴, 고기를 빼앗기긴 했지만, 마음껏 날 수 있는 드넓은 하늘을 이제야 보게 되었어. 이제 하늘은 내 차지야!"

창작의도	장면	보완 전략
[의도 I] 까마귀의 욕망 부각	S# 3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는 한 마리 까마귀 까마귀 : (혼잣소리로) 그동안 먹이가 없어 고생했는데…… 내 화려한 비행술로 고기를 얻을 수 있어 기뻐.	⇒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외딴 곳으로 혼자 날아가는 장면으로 전환하고, 고기에 대한 까마귀의 집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사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 ㉠
[의도 II] 까마귀들의 치열한 경쟁심 강조	S# 12 까마귀들의 공격 한 마리 까마귀를 일제히 쫓아대며 고깃덩어리를 빼앗는 까마귀들 까마귀들 1 : (까마귀를 쫓아대며) 삶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거야. 이리 내! 까마귀들 2 : 고기를 빼앗기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없지른 물이니 함께 나눠 먹자.	⇒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까마귀들 2의 대사를,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 ㉡
[의도 III] 까마귀의 새로운 인식 제시	S# 17 홀로 남은 까마귀 뒤로 펼쳐진 푸른 하늘 드넓은 하늘과 흰 구름 속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한 까마귀. 까마귀 : (혼잣소리로) 친구들을 잃은 것보다 놓친 고기가 더 아까워. (한숨) 그러나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람. 다시 고기를 찾아 봐야지.	⇒ 비록 손해를 보긴 했으나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는 소중한 체험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대사와 지문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 ㉢
[의도 IV] 까마귀와 까마귀들의 삶의 방식 대조	S# 18 서로 다투는 까마귀들 뒤로 넓게 펼쳐진 하늘과 까마귀 한 마리 까마귀들 3 : (고기에 달려들며) 저리 비켜! 이거 내 거야! 까마귀들 4 : (고기를 가로채며) 뭐! 아니야! 내 거야! 까마귀 : (창공에서 이를 내려다보며) 욕심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난 편안해졌어.	⇒ 삶의 방식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고기 탈취 과정에 참여한 까마귀들에게는 고기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까마귀들 5'의 대사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
[의도 V] 까마귀 이야기의 종합적 평가	S# 38 파란 하늘과 유유히 흐르는 구름 서술자 : (배경 음악에 맞추어) 이 한 까마귀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까마귀 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까마귀를 통해 현대인들이 이익에만 급급해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덧붙여 해설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간접 발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점]

〈보 기〉
 '직접 발화 행위'는 종결 어미와 그 기능을 일치시켜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 방식을 말하며, '간접 발화 행위'는 종결 어미와 그 기능을 일치시키지 않고, 화자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 방식을 말한다.

〈대화 상황〉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그래. 늦었구나. ㉠공부 열심히 했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웬 꼬리가 그리 기니? ㉡문 좀 달아라.”
 “아유 엄마, 나 바쁜데…….”
 ㉢“엄마도 바빠서 못 달아요!”
 “알았어요.”
 ㉣“아 참! 애, 일찍 학교 가야 하니 어서 씻고 자렴.”
 “아니예요, 아침에 널 숙제가 두 개나 돼요. 아니, 아니지 또 있는데 뭐더라…….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열 두시가 넘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니?”
 “하긴 그렇네요. 전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관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다소 노골성을 비치는 일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초점을 때리지 않고 (가), 은근한 가운데 함축성 있는 표현을 주로 하였다.
 - 이희승, 「먹추의 말참견」 중에서 -
 ○ 그때 (나) 오리발만 내밀던 녀석의 소행머리를 생각하니 속에서 다시 열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 윤홍길, 「완장」 중에서 -

- | | |
|-----------|---------|
| (가) | (나) |
| ① 변죽을 울리며 | 탄죽을 걸며 |
| ② 변죽을 울리며 | 본때를 보이며 |
| ③ 변죽을 울리며 | 시치미를 떼며 |
| ④ 시치미를 떼며 | 본때를 보이며 |
| ⑤ 시치미를 떼며 | 변죽을 울리며 |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집와서 삼 년(三年)
 오는 봄은
 거친 벌 난 벌에 왔습니다.

 거친 벌 난 벌에 피는 꽃은
 졌다가도 피노라 이롭디다.
 소식 없이 기다린
 이태 삼 년

[A] 바로 가던 앞 강이 간 봄부터
 굽어 돌아 휘돌아 흐른다고
 그러나 말 마소, 앞 여울의
 물빛은 예대로 푸르렀소.

 시집와서 삼 년
 어느 때나
 터진 개* 개여울의 여울물은
 거친 벌 난 벌에 흘렀습니다.

- 김소월, 「무심(無心)」 -

*개 : 강, 시내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

(나)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별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 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攝理)에 불려가고
 즐기는 이렇듯이
 충전(充電) 부싯돌임을 보라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맛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 김남조, 「생명」 -

(다)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 이성복, 「그 여름의 끝」 -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가)와 (나)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체로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농촌 공동체를 배경으로 토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이 주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이상적 세계를 동경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16. <보기>를 [A]로 고쳐 썼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바로 가던 강이 지난 봄부터
굽어 돌아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앞 여울의 물빛은 옛날처럼 푸릅니다.

- ① 어투를 바꾸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 ②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해 시의 운율감을 살려야지.
- ③ '휘돌아 흐른다'를 삽입하여 흘러가는 물의 이미지를 강조해야지.
- ④ 시구를 도치시켜 화자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지.
- ⑤ 특정 시어를 강조하기 위해 한 행을 두 행으로 나누어 배치해야지.

17. <보기>를 통해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로 그림에 자주 등장한다. 「겨울 월출산 소나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한겨울에 찬 눈을 맞으면서 곳곳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나무를 인상적으로 그린 것이다. 홀로 서 있는 이 소나무는 글자 그대로 낙락장송이다. 이 소나무를 보면 고난에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홀로 추위를 견디는 모습이 외롭게 보이기도 한다.

- ① 그림의 소나무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외로운 사람에게 (나)의 '친구'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
- ② '소나무'가 한겨울의 강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 (나)에서 '진실'이 오려면 왜 '불'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지 알 수 있어.
- ③ 소나무가 눈이 덮인 황량한 산과 별판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는데, (나)의 '눈송이'도 황량한 겨울 추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 ④ 그림의 '소나무'에서는 끈질긴 생명력이 느껴지는데, (나)의 '즐기'가 '충전 부싯돌'에 비유된 것을 보면 '즐기'에서 잠재적인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
- ⑤ 그림의 '소나무'가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 (나)의 '겨울 보리'도 겨울의 시련을 견디고 초록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18. ㉠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 이성부, 「벼」 -

- ① 벼
- ② 햇살
- ③ 이웃
- ④ 백성
- ⑤ 마음

19.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과 시적 화자를 대응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종결 어미를 반복 사용하여 형식적인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를 1인칭으로 설정하여 고백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과거 지향적인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⑤ 강렬한 시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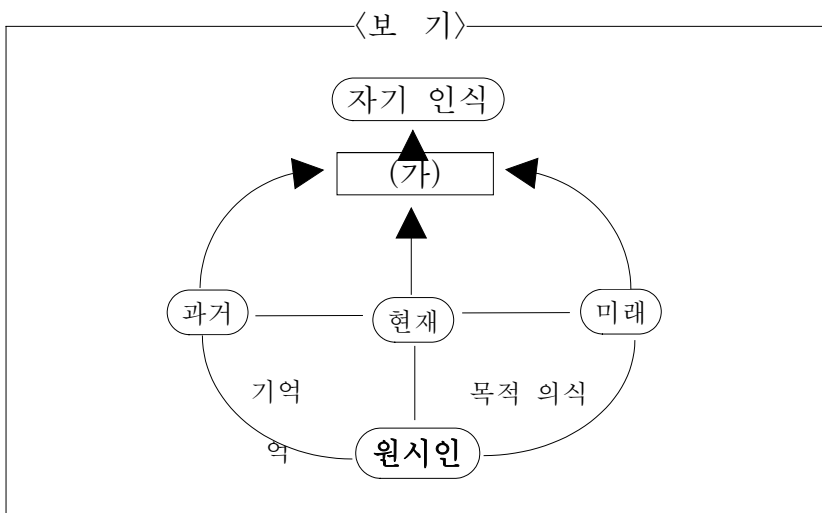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은 자기 의식을 지닌 존재이다. 자기 의식은 본질적으로 기억에 의존한다. 인간이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목적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적어도 미래에 어떤 일을 성취할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명확한 시간적 구분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기억과 목적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르도뉴의 라스코 동굴을 비롯한 구석기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인간은 이미 2만 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하여 목적 의식을 갖고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동굴에다 그림을 그린 것은 일종의 마법적 목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원시인들은 동굴의 벽이나 천장에 다 동물 사냥과 같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림으로써 시간을 고정시키고 또한 그런 사건이 미래의 다른 어떤 곳에서 또 다시 벌어지기를 기원했다. 그림을 통해서 원시인들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재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양태도 자연스럽게 의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시인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끊임없는 현재에 머물면서 동물처럼 살아가려는 인간의 자

연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원시인들은 어떻게 그런 자연적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폴 라댕은 『철학자로서의 원시인』이라는 저서에서 원시인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기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행동하는 인간으로, 이들은 주로 외부의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고 실용적인 결과에만 관심이 있으며 내면에서 벌어지는 ㉠동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다. 또 다른 유형은 생각하는 인간으로, 늘 세계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싶어한 사람이다. ㉡행동하는 인간은 '설명' 그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며, 설명 설명한다고 해도 사건 사이의 기계적인 관계만을 설명하려 한다. 즉 그들은 동일 사건의 무한한 반복을 바탕으로 두고 반복으로부터의 일탈을 급격한 변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생각하는 인간은 기계적인 설명을 벗어나 '하나'에서 '여럿'으로, '단순'에서 '복잡'으로, '원인'에서 '결과'로 서서히 변해간다고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부 대상의 끊임없는 변화에 역시 당황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상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상에 영원 불변의 형태를 부여해야만 했고, 그 결과 세상을 정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즉, ㉣대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무시간적 사고'는 인간의 사고에 깊이 뿌리내린 사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각하는 인간은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늘 변모하는 사건들의 패턴 뒤에 숨어 있는 영원한 요소를 찾아내려고 했으며, 또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런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간이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20.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②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대상의 속성을 구분한다.
 ③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일반적 인식의 모순을 비판한다.
 ④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부에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⑤ 화제를 강조하기 위해 행위의 의도와 결과를 연관지어 설명한다.
21.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했을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사회 의식의 정립
 ② 시간 관념의 형성
 ③ 외부 대상의 변화
 ④ 주술적 효력의 발생
 ⑤ 합리적 사고의 생성

22. ㉠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의표(意表) ② 당위(當爲) ③ 현혹(眩惑)
 ④ 의문(疑問) ⑤ 당혹(當惑)
23. ㉡과 관련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경과에 대해 느끼는 감각은 개인마다 다르다.
 ②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기록하려 한다.
 ③ 인간은 자신과 주변 사물과의 관계 변화에 초점을 둔다.
 ④ 인간의 생활 양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수정된다.
 ⑤ 인간은 자연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모방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24. ㉢, ㉣가 <보기>의 현상에 대해 판단했음직한 내용을 추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① ㉢는 사슴의 수가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고 믿을 거야.
 ② ㉢는 새로 태어난 새끼가 한 마리라는 것 자체에 주목할 거야.
 ③ ㉣는 현재에서 새끼가 없던 과거의 시절을 생각해낼 수도 있을 거야.
 ④ ㉣는 새로 태어난 새끼가 수컷이므로 뿔이 날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⑤ ㉣는 새로 태어난 새끼가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거야.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전 줄거리] 예방 소임을 맡아 제주에 온 배비장은 어머니와 부인에게 여자에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하인에게까지 큰소리친다. 그러나 제주 목사의 지시로 나타난 기생 애랑을 보자 한 눈에 반하고 만다. 배비장이 어렵사리 애랑과 만나 정을 나누려고 하는 순간 방자가 밖에서 여인의 남편 흉내를 내며 호통을 치자, 경황이 없어 애랑이 숨으라는 피나무 껍질에 숨는다.

이 때 껍 속에 든 배비장 그 말 듣고 탄식하되,
 “인제는 바로 화장(火葬)한다. 이 일을 어찌할꼬?”

저 계집도 악을 쓰며 하는 말이,
 “조상(祖上)에서 전래(傳來)하온 기물(器物)이라 소중한 저 궤
 속에 업귀신(業鬼神) 들어 있어 우리 집 여러 식구 먹고 입고
 쓰고 남을 업궤(業櫃)*올세. 불사르진 못하오리.”
 방자가 궤를 내어 하는 말이,
 “네 행실 저러하니, 너 데리고 못 살겠다. 집안의 세간살이 귀치
 않고 예쁘고 젊은 첩인 너도 싫다. 업궤(業櫃) 하나 가졌으면
 내 어디 가서 못 살쪄냐.”
 하더니 그 궤를 걸머지고 나서면서 이른 말이,
 “이년, 정든 본남편 날 버리고 새서방을 네 취하니, 재산 차지
 잘 살아라.”
 저 여인 궤를 붙들며 하는 말이,
 “업궤는 임자가 가져가면 나는 폐가(廢家)하라는가? 이 궤는
 못 놓겠네. 재산 차지 임자가 하고 업궤란 나를 주소.”
 저놈 하는 말이,
 “그럴 터면 양편이 가난치 않게 이 업궤 한가운데 먹줄 맞춰 갈
 라내어, 한 도막씩 가졌으면 그 아니 평균할까? 톱 대어라. 갈
 라 보자.”
 하더니 대톱 들어 마주잡고,
 “다리어라 톱질이야. 슬근슬근 다리어라. 행실 부정(行實不貞)
 몹쓸 년을 내 모르고 두었더니, 오늘이야 알았구나. 월로결승(月
 老結繩) 처음 연분(緣分)** 이 톱으로 잘 켜 보자. 이 궤를 갈
 라내어 윗도막은 너를 주고 아랫도막 내 가지면, 나는 소부(小
 富) 되고 너는 대부(大富) 되어 분복(分福)대로 각기 살자. 이
 톱 바빠 다리어라.”
 좌르르 점점 내려가니 배비장 궤 속에서 아빨싸 벌써 톱밥이 드
 는데, 인제는 바로 허리를 자르는구나 겁결에,
 “여보소 미련하오.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萬里城)을 쌓는다는
 데, 살던 계집 그 궤 모두 주오. 도막 자르면 반실(半失) 아니
 되오?”
 이 놈이 톱 내던지고 하는 말이,
 “아빨싸 업궤신(業櫃神)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었으니 화침(火
 針)으로 찌르자.”
 하고 끝 좋은 가락꽃이***를 불에 달구어 쑥 찌르니, 배 비장의 왼
 편 눈으로 내려온다.
 배비장 기가 막히어 아빨싸, 인제는 생죽음을 하나 보다. 죽기는
 일반이니 악이나 썩 보리라 하고,
 “여보, 아무리 무식하기로 눈동자가 가장 중하지 아니하오?”
 이놈이 화침(火針)을 내던지고 하는 말이,
 “에그 궤신(櫃神)이 저 상황 줄 미리 알고 애걸(哀乞)하니 정
 상(情狀)이 가궁(可矜)이라. 제 몸 상처 않게 궤째 저다 물에
 넣으리라.”
 하고 질방 걸어 궤를 지고 문을 열며 썩 나서서 노래하되, 상두꾼
 의 소리로 하던 것이었다.

(중략)

“하늘이 도우신가? 현원씨(軒轅氏) 배를 만들어 다 통하도록
 건네준 뜻은 날 살리란 배 아닌가? 물에 죽을 나의 목숨 살려
 적덕(積德)이니, 적덕으로 날 살리오.”
 그 사령(使令) 하는 말이,
 “우리 배에는 부정 탈까 못 올리겠고, 궤 문이나 열어 줄 것이
 니, 능히 헤어 갈까?”
 “글랑은 염려 마오. 내가 용산(龍山) 삼개 왕래할 제 개혜엄 날

이나 배웠소.”
 “이 물은 잔물이라, 눈에 들면 멀 것이니 감고 헤자.”
 “눈은 생전 멀지라도 목숨이나 살려 주오.”
 그 사령 하는 말이,
 “그럴 지경이면, 눈이 멀지라도 날 원망은 마시오.”
 하고 함정같이 잠긴 금거북 쇠를 툇 쳐 열어 놓으니, 배비장이 알
 몸으로 썩 나서며 그래도 소경될까 염려하여 두 눈을 잔뜩 감으며
 이를 악물고 왈각 냅다 짚으면서 두 손을 허위적허위적 헤어 갈
 제 한 놈이 나서며,
 “이리 헤자.”
 한참 이 모양으로 헤어 갈 제 동헌(東軒) 댕돌에다 대궁이를
 딱 부딪치니, 배비장이 눈에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뜨며 살펴보
 니, 동헌(東軒)에 사또 앉고 대청(大廳)에 삼공형(三公兄)이며 전
 후 좌우에 기생들과 육방 관속(六房官屬) 노령배(奴令輩)****가
 일시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참는 것이 웃음이라.
 사또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 저것이 웬 일인고.”
 배비장 어이없어 고개를 숙이고 여쭙오되,
 “소인의 선산(先山)이 동소문(東小門) 밖이옵더니, 근래 서남풍
 이 들어 이 지경 되었나이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 업궤(業櫃) : 업보(業報) 귀신이 든 궤
 ** 월로결승(月老結繩) 처음 연분(緣分) : 월하노인이 맺어준 처음 인연
 *** 가락꽃이 : 물레질할 때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노령배(奴令輩) : 지방 관아의 관노와 사령들

25.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이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작품
이야. 세상일은 결국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 ② 신분 상승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비판한 작품이야. 권력에 대
한 집착은 결국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고 마는 거야.
- ③ 무위도식하는 인간의 사회적 해악을 지적하는 작품이야. 사회
적 비용만 축내며 행세하는 사람들은 추방되어야 해.
- ④ 교활한 인간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작품이야. 출세가 아
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야.
- ⑤ 허세를 부리는 인간의 가식적인 모습을 비꼰 작품이야. 이중
성을 지닌 인물은 언젠가는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26. 위 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사또’는 사건의 해결을 주도한다.
- ② ‘방자’는 희극적 상황을 유도한다.
- ③ ‘애랑’은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
- ④ ‘배비장’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 ⑤ ‘사령’은 인물을 희화화하는 데 기여한다.

27. 위 글을 마당극으로 무대에 올릴 때, 구상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극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상황에 어울리는 장단을 준비하는 게 좋겠어.
- ② 대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해학성을 드러내는 게 좋겠어.
- ③ 중간 중간에 서술자 역할을 하는 인물을 투입해 보는 것도 어울리겠어.
- ④ 무대는 관객들에게 현장감을 주기 위해 바다를 배경으로 꾸미는 게 좋겠어.
- ⑤ 희극적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능청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하겠어.

28. ㉠의 말하기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네가 누구인고?”
홍부는 기가 막혀 대답하되,
“내가 홍부올시다.”
놀부가 소리질러 가로되,
“홍부가 어떤 놈인가?”
- ② “당신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 ③ “네 고을에 양이가 있느냐?”
이방이 아뢰되,
“소인 고을에 양은 없사와도 염소는 한 이십마리 있나이다.”
신관이 하는 말이,
“없다, 이놈아! 기생에 양이가 있느냐?”
- ④ “인제도 웅가라 하겠느냐?”
실용가 생각하되, 만일 웅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하니,
“예, 웅가 아니오.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전(衙前)이 호령하여,
“장채 안동하여 저놈을 월경(越境)하리라.”
- ⑤ 여우 어이없어 물러앉으며 가로되,
“그러하면 존장은 하늘 구경도 하셨나이까?”
두꺼비 왈,
“너는 하늘 구경하였는가?”
여우 왈,
“하늘은 구경한 지 오래지 않으니 삼년 삼일에 보았노라.”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구나 어릴 적에 어떻게 하면 물수제비를 오래 뜨게 하는가를 겨루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물수제비를 잘 뜨게 만드는 비법도 사람들마다 제각각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있어 물수제비는 회전하는 물체가 중력을 이기고 유체를 치고 나가는 역학 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지난 2002년 프랑스의 보케 교수는 물수제비 횡수는 돌의 속도가 빠를수록 증가하며, 최소 한 번 이상 튀게 하려면 시속 1km는 돼야 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평으로 걸어 준 회전이 또 한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즉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처럼 돌에 회전을 걸어 주면 돌이 수평을 유지하여 평평한 쪽이 수면과 부딪칠 수 있다. 그러면 돌은 물의 표면장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위로 튕겨 나간다는 것이다.

물수제비 현상에서는 또 다른 물리적 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단면(斷面)이 원형인 물체를 공기 중에 회전시켜 던지면 물체 표면 주변의 공기가 물체에 끌려 물체와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또한 물체 외부의 공기는 물체의 진행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 때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르면, 물체 표면의 회전하는 공기가 물체 진행 방향과 반대편으로 흐르는 쪽의 속도가 빨라져 압력이 작아지지만, 물체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는 쪽의 공기는 속도가 느려 압력이 커지게 되고, 결국 회전하는 물체는 압력이 낮은 쪽으로 휘어 날아가게 된다. 이를 ‘마그누스 효과’라고 하는데, 돌을 회전시켜 던지면 바로 이런 마그누스 효과로 인해 물수제비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보케 교수는 또한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돌에 구멍을 내는 것도 물수제비 발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물리학자 클라네 박사와 보케 교수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물수제비의 핵심은 돌이 수면을 치는 각도에 있었다. 이들은 알루미늄 원반을 자동 발사하는 장치를 만들고 1백분의 1초 이하의 순간도 잡아내는 고속 비디오카메라로 원반이 수면에 부딪치는 순간을 촬영했다. 그 결과 알루미늄 원반이 물에 빠지지 않고 최대한 많이 수면을 튕겨 가게 하려면 원반과 수면의 각도를 20°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클라네 박사의 실험에서 20°보다 낮은 각도로 던져진 돌은 일단 수면에서 튕겨 가기는 하지만 그 다음엔 수면에 맞붙어 밀려가면서 운동에너지를 모두 잃어버리고 물에 빠져 버렸다. 돌이 수면과 부딪치는 각도가 45°보다 크게 되면 곧바로 물에 빠져 들어가 버렸다.

물수제비를 실제로 활용한 예도 있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영국군은 독일 루르 지방의 수력 발전용 댐을 폭파해 군수 산업에 치명타를 가했다. 고공 폭격으로는 댐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고 저공으로 날아가 폭격을 하자니 폭격기 [A] 마저 폭발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영국 공군은 4t 무게의 맥주통 모양 폭탄을 제작하여 18m의 높이로 저공 비행을 하다가 댐 약 800m 앞에서 폭탄을 분당 500회 정도의 역회전을 시켜 투하시켰다. 포탄은 수면을 몇 번 튕겨 나간 다음 의도한 대로 정확히 댐 바로 밑에서 폭발했다.

이러한 물수제비 원리가 응용된 것이 성층권 비행기 연구다. 즉 이륙 후 약 40km 상공의 성층권까지 비행기가 올라가서 엔진을 끈 후 아래로 떨어지다가 밀도가 높은 대기층을 만나면 물수제비 처럼 튕겨오르게 된다. 이 때 엔진을 다시 점화해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서 대기층을 튕겨 가는 방식을 되풀이한다. 과학자들은 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18번의 물수제비를 뜨면 시카고에서 로마까지 72분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수제비를 바탕으로 초고속 비행기까지 생각해냈다. 그 예지가 참으로 놀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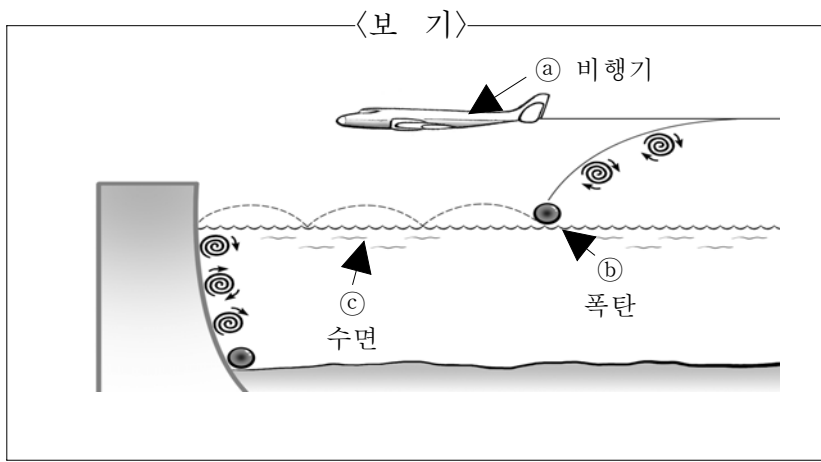
29.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1점]

- ① 돌이 무거울수록 물수제비 현상은 더 잘 일어난다.
- ② 돌의 표면이 거칠수록 물의 표면 장력은 더 커진다.
- ③ 돌을 회전시켜 던지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 ④ 돌의 중력이 크면 클수록 물수제비 현상이 잘 일어난다.
- ⑤ 수면에 부딪친 돌의 운동 에너지가 유지되어야 물수제비가 일어난다.

30. ㉠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프리즘을 통해 빛이 분리되는 것을 알고 무지개 색을 규명해냈다.
- ② 새가 날아갈 때 날개에 양력이 생김을 알고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 ③ 푸른곰팡이에 세균을 죽이는 성분이 있음을 알고 페니실린을 만들어냈다.
- ④ 물이 넘치는 것을 통해 부력이 존재함을 알고 거대한 유조선을 바다에 띄웠다.
- ⑤ 수증기가 올라가는 현상을 통해 공기가 데워지면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열기구를 만들었다.

31. [A]를 그림으로 나타낸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투하된 b의 속도의 세기가 튕겨지는 횡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② b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압력이 더 낮았을 것이다.
- ③ b의 아래쪽 공기의 흐름이 위쪽보다 빨랐을 것이다.
- ④ b의 회전이 반대였다면 b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 ⑤ b와 c가 만나는 각도에 따라 튕겨지는 횡수가 달랐을 것이다.

32. 위 글에서 <보기>의 '실마리'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우주선이 지구에 귀환할 때에는 고밀도의 대기층에 부딪쳐 우주선이 튕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우주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물수제비 실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 ① 원반과 수면의 각도가 20°일 때 물수제비가 가장 잘 일어났다.
- ② 돌에 구멍을 내어 던졌더니 공기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 ③ 성층권에서 물수제비를 응용한 비행기가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
- ④ 물수제비를 최소 한 번 이상 튀게 하려면 시속 1km 이상은 되어야 한다.
- ⑤ 원반을 수면에 45°보다 큰 각도로 던졌더니 곧바로 물에 빠져 들어가 버렸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 집안은 일찍부터 한 마지기의 논이나 밭빼기 한 평도 지너 본 적이 없었으므로 아버지께서는 호미 자루 한 번 잡아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을 가져 본 적도 없었다. 일 년을 따져 평균 아홉 달은 집을 떠나 어디론가 떠돌아다녔고, ㉠집에 붙어 있는 나머지 달은 낚시로 소일했다. 이태 전 봄까지만도 우리는 읍내 거리 장터에 살았었다. 그러나 새마을 도로가 확장되는 통에 우리가 세든 읍내 장터거리의 집이 헐리게 되자 아버지는 엄마를 졸라 동관개못 옆 민씨 별채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다. 엄마는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 당신의 장사 다니는 길이 먼 줄을 뻔히 알지만, 어떻게 집밭이나 좀 붙어 눌러있을까 싶었던지 그 말에 쉽게 동의했다. ㉡그러나 이사를 와서 보름을 채 못 넘겨 아버지는 또 슬그머니 집을 떠나고 말았었다.

(나) 아버지는 그로부터 두 달 뒤, 여름이 끝날 무렵에서야 돌아왔다. 그리곤 그 행려 끝에 무슨 결심을 얻어 왔는지 돌배산 자락을 덮은 민씨네 대나무 밭의 굵은 몇 그루를 저와 방패연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내게 더러 방패연을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한 번도 없던 짓거리였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그것을 햇빛에 잘 말려선, 장두칼로 잘 다듬고, 한지에다 바람구멍을 뚫어 거기에 다섯 개의 댓가치를 붙여 방패연을 만드는 솜씨는 아마도 아버지가 지닌 유일한 기술 같아 보였다. 천정 가운데 태극 무늬나 붉은 원을 그려 붙여 만든 연이 큰 것은 신문지 만했고, 작은 것은 교과서 만한 것도 있었다. “겨울도 아닌데 그 연을 어디다 팔라잡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머 꼭 돈이 목적이라서 맨드나. 쓸모가 없어도 맨들제. 풀이 만약 키 자랑할라카몬 나무만큼 클 끼다. 그러나 제 키만큼 적당히 자라고 말제.” 하고 ㉣아버지가 쓸데없이 비유까지 곁들여 말했다. “그라몬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해서 만들어예?” 내가 재차 묻자, 아버지는 뚱한 얼굴로 “사람은 꼭 어디 갈 목적이 없어도 누구나 다 연맨쿠로 그냥 날아 댕기고 싶은 기라.”

(다) 뇌성이 치고 전기까지 나가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큰비가 쏟아질 것 같아 나는 엄마의 귀가가 적이 걱정되었다. 어둠 속에서 동생 순희의 나직한 한숨이 들려 왔다. 나는 마루에서 내려섰다. 어둠 속의 허공을 조심조심 건너 나는 뒤꼍으로 돌아갔다. 자전거를 끌고 앞마당으로 나오자 아버지가 “내하고 같이 갈까?” 하고 물었다. “편찮은데 그냥 쉬시이소.” 하곤 나는 자전거를 끌고 삼짱을 나섰다.

곧 소나기가 정수리를 파며 쏟아질 것 같았다. 지면이 고르지 못한 샅길을 빠져나가자 읍내로 통하는 포장 안 된 신작로가 나섰다. 길옆의 포플라들이 마치 벌받느 학생들처럼 늘어서 어둠 중에 짙은 어둠으로 판화처럼 찍혀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익숙한 길이라 나는 자전거의 페달을 힘주어 밟았다. ㉤조금이라도 빨리 엄마를 만나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습기 머금은 녹진한 맞바람이 얼굴을 활았다.

(라) “어무이, 아버지가 방금 돌아왔어예.” 엄마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가 말했다. “그래예?” 하고 반문하며 엄마는 나를 보았다. 입가에 미소가 잠시 머무는 것 같기도 했고, 그저 무심히 나를 보는 듯도 했다.

“병은 안 든 것 같고, 행색은 어떻더노?”

“지팡이를 짚고 돌아왔어. 힘 하나 없이 쓰러질 듯이 말임다.”
 나는 엄마의 머리에 얹힌 **함지박**을 받아 짐받침에 실으며 말했다. 함지박 속에는 팔다 남은 생선 몇 마리와 한 말 남짓한 쌀 부대가 들어 있었다. 뇌성이 다시 한 번 하늘 북판에서 쪼개졌다. 엄마는 흠칫 어깨를 떨었고, 나는 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놀람으로 무심결에 자전거의 핸들을 꽉 눌러 잡았다.
 “지팡이를? 그라몬 어대를 다쳤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
 (마) 아버지가 위암으로 별세했다는 **속달 전보**가 날아온 것은 그 해 막바지 첫 강추위가 시작되어, 기온이 영하 십 도까지 떨어진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려, 아니면 무엇을 찾아 그곳까지 흘러 들어갔는지, 저 전라남도 땅끝 진도에서 떠돌이 생활을 영원히 마감했던 것이다. 그로써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의 마음에 기억할 만한 못 하나 못 박은 채 이름 없이 사라졌다. 마침 나는 방학이 시작되었던 참이라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러 엄마와 찾아 나섰다. 아버지는 그곳 면내 보건소의 시체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는 그곳에서 화장으로 치러졌고, 척추 뼈 몇 조각을 보자기에 싸서 우리 모자는 훌훌히 집을 떠났다.** 발동선이 다도해를 빠져 목포가 가까워질 즈음, 엄마는 무슨 생각에선지 싸온 뼈를 바다에 흩뿌렸다.
 “당신, 인자 처자가 보고 싶어도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으께 이 넓은 바다로나 마음놓고 떠돌아 댕기소. 떠돌아 댕기며 괴기 구경, 물 구경이나 실컷 하소.”
 엄마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이 매운 바닷바람에 흩날렸다. 엄마는 넓은 바다를 두리번거리며, 마치 죽은 아버지를 물이랑 속에서 찾듯 한동안 젖은 눈을 풀어놓더니 갑자기 움켜쥐고 있던 뼈를 턱 보자기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의 어금니 사이에서 깨어져 나오는 오열 속에 췌 조각 같은 단단한 한 음절을 들을 수 있었다.
 “아이구, 나는 인자 누굴 믿고 우에 살꼬…….”
 - 김원일, 「연(鰲)」 -

3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장터’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삶의 공간이라면, ‘별채’는 아버지가 집에 머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소망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 ② (나)의 ‘대나무’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의지를 나타내고, ‘풀’은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아버지의 의식을 드러낸다.
 - ③ (다)의 ‘뇌성’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 좌절되었음을 나타내고, ‘신작로’는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라)의 ‘자전거’가 유년 시절 ‘나’의 소망을 드러내는 소재라면, ‘함지박’은 미래에 대한 어머니의 소망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⑤ (마)의 ‘속달 전보’는 어머니의 희망이 좌절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에게는 아버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남을 뜻한다.

34. 위 글을 읽고 감상의 과정에 따라 ‘아버지’의 삶을 중심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상의 과정	감상의 초점	감상의 초점에 따른 글쓰기
문제 설정	‘아버지’와 현실 세계	‘아버지’와 현실과의 부조화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문제 분석	‘아버지’의 현실 인식 태도	현실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적 노력 없이 떠돌이 삶을 반복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서술한다.
태도 비판	‘아버지’의 현실 인식이 갖는 문제점	㉠
대안 탐색	바람직한 삶의 태도	현실적 삶에 충실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한다.

- ①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점을 서술한다.
- ② 현실에 타협하는 삶이 이상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한다.
- ③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없이 떠돌기만 하는 삶은 현실과의 괴리감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서술한다.
- ④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서술한다.
- ⑤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기 만족감에 집착하여 현실에 적응하려는 능동적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을 서술한다.

35. <보기>와 같이 ‘연’이 제시된 장면을 정리하여 ‘연’의 의미와 기능에 관해 심화 학습을 전개하였다.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내 나이 열 네 살 때 돌아가신 니 할부지는 젊은 한 시절을 방물장사로 떠돌아댕겼제. 부산서 물건을 받아다가 그걸 다 팔 동안 달포나 집을 비웠다 돌아오면 한 이틀이나 사나흘 정도 집에서 머물곤 했지러. 겨울철이면 집에 쉼 동안 내게 꼭 큰 방패연을 만들어 줬제. 그 연줄이 감긴 자세와 연을 내게 쥐어주고 집을 나설 때, 섭섭해 올라카는 나를 보고 아부지는 노상 이런 말씀을 하셨능기라. 아부지가 보고 싶으로 이 연을 훨훨 띄어라, 저 하늘 높이 연이 나르는 곳이 바로 아부지가 기시는 곳이거덜, 하고 말이다.
- 어느 일요일, 아버지는 열 개 남짓한 방패연에 일 미터쯤 실을 달아 그것을 들고 동관개못으로 나갔다. 나도 아버지를 뒤따랐다. 아버지는 그 연들을 여각 앞 공터에다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큰 연은 삼백 원, 작은 연은 이백 원에 팔았다. 방죽 길을 걸으며 아버지가 허탈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맨들긴 내가 맨들 테니 일요일에 팔기는 니가 팔아라.” 다음 일요일에 순희와 나는 스무 개의 연을 들고 못가로 나갔지만 판 연은 겨우 네 개에 불과했다. 그때도 아버지는 집에 머문 지 두 달을 못 채워 또 집을 떠나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해도 저문, 세모가 임박하여 예의 초라한 꼴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또 연을 만들기 시작했다.

- ① ‘연’은 얽매이지 않고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
- ② ‘연’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을 드러낸다.

러낸다.

- ③ ‘연’은 세상을 유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드러낸다.
- ④ ‘연’의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속성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방랑하는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 ⑤ ‘연(鵝)’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나’에 이르기까지 삼대에 걸친 ‘연(緣)’의 연결 고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36.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애걸복걸(哀乞伏乞)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 ② 어머니가 아버지를 애지중지(愛之重之)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
- ③ 아버지가 수구초심(首邱初心)하며 어머니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 ④ 어머니가 전전공공(戰戰兢兢)하며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 ⑤ 어머니가 아버지를 항구여일(恒久如一)하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37.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의 생명체가 보여 주는 행동이나 구조, 그들이 만들어내는 물질 등을 연구해 모방함으로써 인간 생활에 적용하려는 기술이 생체 모방이다. 원시 시대 사용되던 칼과 화살촉은 육식 동물의 날카로운 발톱을 모방해서 만들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행기 도면을 설계할 때 새를 관찰하고 모방하였다. 그러나 ‘생체 모방’을 공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나노기술의 발전과 극소량의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유전공학 등 관련 분야의 발달로 비로소 가능해졌다.

바다에 사는 홍합은 심한 파도에도 바위에서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다. 홍합의 ‘교원질 섬유 조직’은 바위에 자신의 몸을 붙이는데 사용되는 생체물질로, 물에 젖어도 ㉠떨어지지 않는 첨단 접착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 조직은 근육을 뼈에 부착시키는 사람의 건섬유보다 5배나 질기고, 잡아당길 때 늘어나는 신장력은 16배나 크며, 인체에 사용하여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용되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한 후 상처를 실로 꿰맬 필요 없이 접착제를 바르기만 하면 되고, 기존의 화상 환자는 이식 수술을 받아도 다른 부위의 살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만, 홍합이 만들어 내는 ‘교원질 섬유 조직’을 이용해 인공 피부를 이식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 하나, 바다 밑바닥에 사는 거미불가사리는 밝은 곳에서는 물론이고, 어둠 속에서도 적의 접근이나 은신처를 매우 빨리 알아내 정확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거미불가사리의 몸통과 팔을 연결하

는 부위에는 탄화칼슘으로 이루어진 방해석이라는 미세한 수정체들이 무수히 박혀 있으며, 이 수정체들은 작은 빛도 받아들여 이것을 광학적 신호로 전환해 신경망으로 전달한다고 한다. 이 수정체가 마이크로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를 모방하여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10분의 1정도 크기의 패턴을 갖는 방해석 단일 결정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결정체는 인간의 기술로 개발된 어떤 렌즈보다 훨씬 더 작으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빛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거미불가사리의 둥근 초소형 수정체와 신경망 작동 시스템은 주변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고성능 광학렌즈는 물론 최신형 초고속 광통신망의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가 오더라도 연잎에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오히려 굴러 떨어지는 것이 연잎 위에 울룩불룩하게 돋은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수많은 돌기 덕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것을 ‘연잎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효과는 연잎에 먼지가 닿아도 먼지가 잎에 붙지 않고 오히려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아주 작은 힘만 가해도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응용하면, 비만 오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유리창, 물만 한 번 내리면 깔끔해지는 변기 등을 만들 수 있다.

35억 년 역사를 가진 지구에는 수백만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다. 그들은 긴 시간을 겪으면서 환경에 적응했으며, 서로 다른 특징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밝혀진 것은 아주 미미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동식물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간직한 비밀의 열쇠를 찾아 인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연과 기술을 조화롭게 응용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 생체모방공학의 목적이다.

이제 과학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을 배우고자 한다. 자연을 배우고, 자연을 모방한 과학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을 위한 과학이 아닌가 생각한다.

38. 위 글의 서술 방식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전문가의 이론을 소개하여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과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이론을 대비하여 특정 이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추상적 개념을 친숙한 사물에 빗대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9. 위 글의 내용을 적용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종균 배양법으로 야생 버섯의 품종을 개량하여 재배한다.
- ② 오리를 논농사에 이용하여 농약 없이 유기농 쌀을 수확한다.
- ③ 유전자를 변형시킨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여 수확량을 늘린다.
- ④ 벌집의 육각형 구조를 본떠서 건축물을 튼튼하게 짓는다.
- ⑤ 진드기의 천적인 무당벌레를 이용하여 무공해 배추를 생산한다.

40. 위 글에 제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홍합	거미불가사리	연잎
모방 대상	교원질 섬유 조직	(나)	돌기
특성	(가)	감각성 발달	비접착성
장점	면역 거부 반응 없음	빛을 감지함	(다)
적용	수술용 접착제	마이크로 렌즈	특수 유리

- | | | |
|-----------|-----|-------|
| (가) | (나) | (다) |
| ① 회복력이 빠름 | 빛 | 정화 능력 |
| ② 회복력이 빠름 | 신경망 | 재생 능력 |
| ③ 흡착성이 좋음 | 신경망 | 흡수 능력 |
| ④ 흡착성이 좋음 | 방해석 | 정화 능력 |
| ⑤ 신장력이 좋음 | 방해석 | 흡수 능력 |

41.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쌀이 떨어져 두 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 ②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③ 굵은 빗방울이 머리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 ④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은 스티커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 ⑤ 1과 자기 자신 외의 어떤 수로 나누어도 떨어지지 않는 수를 소수라 한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의식은 변하기 마련이고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미술의 풍조도 변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유행에 좌우되지 않고 미술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기준은 없는가? 바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미술품이 살아 숨쉬는 데서 느끼는 긴장된 느낌, 즉 생명력이 기준이다. 길거리에서 파는 ㉠유명 작가의 아류작과 오랜 세월 창작의 고통을 겪은 작품이 같을 수는 없다. 생명력은 미술 문화의 황금기라고 해서 넘치는 것도, 쇠퇴기라고 해서 쇠잔해지는 것도 아니다. 석굴암같이 완벽한 조형미를 과시하던 8세기 조각 작품들 중에도 의외로 생명력이 약한 작품이 존재하며, 9세기 조각처럼 기하학적 형상으로 단순화되는 시기에도 강한 생명력을 내뿜는 작품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생명력에 의한 작품의 완성도가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의 전환기에 만들어진 미술에서 강한 생명력이 뿜어 나오곤 했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 의욕이 넘쳐 에너지가 과도하게 분출되는 미술이 부상하는 것이다. 삼국 중에서 가장 열세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그 자신감이 조각에 금세 표출되었던 경우가 있다. 매우 권위적인 ㉡불상의 모습이 등장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모습이 역력히 나타난다. 또한, 민간 문화의 득세에 힘입어 성행한 19세기의 민화에서도 기교를 배제한 자연스러움 속에서 생명력이 발현되었다.

[A] 민화는 일반 회화와 같이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하여 자유자재로 변형시킨 회화이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생명이 살아 넘치는 미술품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작품을 대할 때 작품이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 작품 속에는 생명력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생명력이 작품 속에 깃들여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담겨져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가의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부터 창작은 시작된다. 애정이 결여되면 ㉢대상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내밀한 대화도 나눌 수 없다. 고갱은 타히티 섬을 진정으로 좋아했기에 그곳 여인들의 강렬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을 작품을 통해 전할 수 있었고, 공재 윤두서는 말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기에 살아 움직이는 섬세한 필치로 말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작가가 대상을 그리려면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애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을 대하는 기본적인 감성인 애정은 물론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이 때의 방법은 대상을 그릴 때, 대상의 본질(本質)을 이해하기 위한 창작 과정을 말한다. 북송대 문인화의 대가였던 문동의 대나무 그리는 과정에 대해 소동파(蘇東坡)는 이른바 ㉤'홍중성죽(胸中成竹)' 즉 '가슴속에 대나무를 이룬다'고 하여 ㉥대나무가 그인지 그가 대나무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야 대나무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가슴속에 맺힌 대나무를 풀어놓으면 대나무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다.

생명의 미학은 우리 조상들이 미술을 보아왔던 기준이었고, 앞으로 우리들이 미술을 보아야 할 표준이다. 작가가 대상의 생명력을 작품 속에 그리듯이 독자도 작품을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해야 한다. 미술을 생명체로 인식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생명의 미학'이야말로 진정으로 미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자세인 것이다.

42. [A]를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배도란 새해에 대문 양 옆에 붙여서 집안의 액운을 막고자 하는 용도로 제작된 민화의 한 종류이다. 문배도에는 재앙과 악귀를 쫓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민중의 소망이 담겨 있다.

- ① 개의 발과 머리에 뿔을 그린 것을 보니, 일상적인 관념에서 탈피한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군.
- ② 개의 코를 주먹코로 크게 확대 변형하여 그린 것을 보니, 생명력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느낄 수 있군.
- ③ 개의 발을 우람하게 그린 것을 보니, 현실 세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변용하는 민화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군.
- ④ 개의 꼬리털을 위로 뻗치게 그려 놓은 것을 보니, 대상이 지닌 생동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찾을 수 있군.
- ⑤ 개의 둥근 반점을 일정 간격으로 그려 넣은 것을 보니, 동물 그림의 화법에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군.

43. ㉠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이런들 엇더흐며 더런들 엇더흐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흐료?
흐몰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타 므슴흐료?
- ② 님이 헤오시매 나는 전혀 미덜드니
날 스랑흐던 정(情)을 뉘손디 움기신고
처음에 므시던 거시면 이대도록 설오라.
- ③ 녹초(綠草) 청강(淸江)상에 굴레 버슨 물이 되어
째째로 멀이 들어 북향(北向)흐야 우는 뜻은
석양(夕陽)이 재 넘어 감애 님자 글여 우노라.
- ④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랏.
청약립(靑蕘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냐.
무심(無心)흐 백구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 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흐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하노라.

44. ㉡~㉤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거리가 먼 것은?

— < 보 기 —

옛 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알기만 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기만 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옛 시서화(詩書畵)는 살아 숨쉬는 예술품이다. 옛 시서화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어려울지 몰라도, 그 작가의 혼과 열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작가의 내면 세계로 접근해 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동양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5. 위 글의 내용을 심화 학습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술품을 감상하는 보편적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어.
- ② 역사적 쇠퇴기에서도 생명력이 발현된 예술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아야겠어.
- ③ 윤두서의 다른 작품에서도 섬세한 필치로 인한 생동감이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아야겠어.
- ④ 8세기 조각 작품 중에서 생명력이 약하게 나타나게 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어.
- ⑤ 독자가 작품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할 수 있는 미술 감상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어.

[46~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울봄에는 일이 있어 세 차례나 남쪽을 다녀왔다. 봄은 남쪽에서 꽃으로 피어난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매화가 그 좋은 향기를 나누어주더니 산수유와 진달래와 유채꽃이 눈부시게 봄기운을 내뿜고, 뒤이어 살구꽃과 복사꽃, 벚꽃이 흐드러지게 봄을 잔치하고 있다.
메마른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다니, 그 꽃에서 고운

빛깔이 생겨나고 은은한 향기가 들려오다니.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신비롭기만 하다.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는 그대로가 우주의 조화다. 이 우주의 조화에는 가난도 부(富)도 상관없다. 모든 것이 그때를 알아, 있을 자리에 있을 뿐이다.

꽃은 무심히 피고 소리 없이 진다. 이웃을 시새우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꽃에 비하면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시끄럽고 거칠고 영악스럽다. 꽃이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피어나는 것은, 묵묵히 피고 지는 우주의 신비와 그 조화를 보고 배우라는 뜻일 수도 있다. 사람도 그 삶이 순수하고 진실하다면 한 송이 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다고, 내가 아는 어느 한 분이 살다간 빈 오두막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오두막은 벼랑 아래 돌과 흙과 나무로 지어졌다. 마당에 들어서면 앞이 툭 트여 멀리 바다가 내다보이는 그런 곳이다. 빈집인데도 간소하고 질박하다. 높지 않은 마루를 올라서면 방 두 개가 장지문으로 이어져 있는데, 한 칸은 선방(禪房)으로 썼음인지 빈 방에 달랑 방석 한 장뿐.

장지문을 통해 들어선 작은 방은 유리 대신 투명한 비닐로 창을 바르고 안으로 창호지를 드리워 놓았다. 드리워진 창호지를 걷어올리면 방 안에 앉아 차를 들면서 멀리 바다를 내다볼 수 있게 하였다. 한쪽에 조촐히 다기(茶器)가 다포(茶袍)에 덮여 있었다. 그 창으로 달빛도 들어오고, 봄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방안은 더 소개할 거리가 없을 만큼 텅 비어 있었다. 추녀 밑에는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 장작과 삭정이를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다.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쌓아올린 장작더미를 보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훤히 짐작할 수 있다.

- 법정, 「어느 오두막에서」 -

(나)

산수간 바회 아래 뿌집을 짓노라 흐니
[A] 그 물론 늙들은 웃는다 흐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디는 내 분인가 흐노라.

보리밥 뜻노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B] 바윗긔 몫긔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랏.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랏.
[C]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임천(林泉) 한흥(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랏.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D]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흐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다틀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흐시도다.
- 윤선도, 「만흥(漫興)」 -

* 하얌 : 향암(鄕闇). 시골에 사는 무식한 사람.

** 만승 :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 소부와 허유 : 임금직을 거절하고 자연 속에 살았다는 중국의 대표적인 사람.

**** 낙뎡더라 : 약뎡더라.

(다)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뎡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

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다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 緩步)하야 시냇²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띠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천촌 만락(千村萬落)이 곳 곳이 버러 잇니.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펏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 정극인, 「상춘곡」 -

4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
- ② 자연에 묻혀 즐기려는 속내가 드러나 있다.
- ③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④ 자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자연에 의탁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47. (가)에서의 '꽃'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식의 대상	인식의 과정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꽃'	현상의 발견과 인식 ... ㉠
↓	↓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꽃'	인식의 심화와 확대 ... ㉡
↓	↓
인간과 삶	삶의 통찰과 적용 ... ㉣

- ① ㉠은 다양한 꽃이 피어나는 객관적 현상을 관찰하고 있는 과정이다.
- ② ㉡는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사물의 존재 의의를 생각하는 과정이다.
- ③ ㉢은 '개화'에서 자연 원리를 찾아내고 글쓴이가 신비감을 느끼는 과정이다.
- ④ ㉣은 '꽃'과 세속적 삶을 대비하여 글쓴이의 주관을 개입시키는 과정이다.
- ⑤ ㉣은 다른 사례와 연관지어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48. [오두막]에 다녀간 사람의 입장에서 위 글의 독자에게 오두막에 방문하기를 권유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위 글의 내용을 고려한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봄 바다와 달빛과 물안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십시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②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머물다 훌쩍 그곳을 떠나올 수 있다면 가 보십시오. 바다와 달빛이 당신을 맞이하고 배웅할 것입니다.

- ③ 창가에 서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보시길 원하십니까? 거기에 가면 풋풋한 솔향기와 바람 소리를 느끼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으니 서두르세요.
- ④ 따뜻한 방에서 봄 바다와 달빛을 즐기시길 원하십니까? 달빛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 속에서 모두 당신의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곳에 가십시오.
- ⑤ 오두막에는 당신처럼 가슴이 맑은 사람을 기다리는 빈 방이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떠나면 그 방에서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세요.

49. (나)와 (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적 음보의 반복과 대구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청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적 대상을 지칭하는 다양한 시어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50. (나)에 사용된 시어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뿌집'과 [B]의 '꽃노물'은 화자의 소탈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
- ② [B]의 '바회'는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고, [A]의 '바회'는 화자가 기거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시어라고 볼 수 있어.
- ③ [C]의 '낙뚫더라'는 대상의 현명함을 표현하는 시어이고, [A]의 '웃는다'는 화자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태도를 표현하는 시어야.
- ④ [C]의 '만승'은 화자가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이고, [D]의 '인간만사'는 화자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대상이야.
- ⑤ [D]의 '다툼이 없는 강산'에는 화자가 세속과 자연을 대조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C]에서 '이만하랴'처럼 자연에 심취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반영되고 있어.

51. (다)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자연을 통해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군.
- ③ 대상에 동화된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군.
- ④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군.
- ⑤ 현실의 어려움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토로하고 있군.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현대인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물론 그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인지도 모른다. 어빙 고프만 같은 학자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려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람들은 대체로 남 앞에 나설 때에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배우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주로 대중 문화의 속성에 기인한다. 사실 20세기의 대중 문화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형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고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조바심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그 중에서도 외모와 관련된 제품의 광고는 개인의 삶의 의미가 '자신이 남에게 어떤 존재로 보이느냐?'라는 것을 무수히 주입시킨다. 역사학자들도 ㉢'연기하는 자아'의 개념이 대중 문화의 부상과 함께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적어도 20세기 초부터 '성공'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일관성을 잃고 상황에 따라 적응하게 되는 현대인들은 대중매체가 퍼뜨리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렇듯 현대인의 새로운 타자 지향적인 삶의 태도는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순간의 욕구에 의해 채워져야 할 빈 공간이 될 것을 요구했다. 현대 사회에서 각 개인은 사회 적응을 위해 ㉣역할 수행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연기를 모니터 하면서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는 세련되었다는 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흔히 거론되는 '신세대 문화'의 특성 중 하나도 ㉤'사회적 가면'의 착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신세대는 구세대에 비해 훨씬 더 솔직하고 가식이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가면'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기를 감추거나 누구를 속인다는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세대는 남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서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크고, 그것은 ㉥자신의 자아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가면'에만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를 향유했던 사람들은 비교적 사람의 내면 세계를 중요시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 관계에 있어, 그 누구도 타인의 내면 세계를 깊이 알고 하지 않거나와 사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무언가 '느낌'으로 와 닿는 것만을 중시하며 살아간다. 그 '느낌'이란 것은 꼭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의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옷차림새나 말투 하나만 보고도 금방 그 어떤 '느낌'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을 단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겉모습에서 주어지는 인상에 의해 상대방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52. 위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점]

- ① 현대인들은 자아 중심적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현대인들은 세대 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 ③ 현대인들은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 ④ 현대인들은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⑤ 현대인들은 긍정적 세계관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53. ㉠의 입장에서 ㉡을 비판할 수 있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똑배기보다 장맛이다.
- ② 걸이 고우면 속도 곱다.
- ③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 ④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 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54.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홈쇼핑 광고를 보던 주부가 쇼핑 도우미의 말을 듣고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하여 상품을 주문하였다.
- ② 영화관에 간 여학생이 남량 특집 영화에서 화장실에 귀신이 나오는 장면을 본 후로는,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 꼭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 ③ 한 소녀가 살을 빼는 식품 광고에 나오는 다른 소녀의 마른 모습을 본 후, 자신이 많이 찼다고 생각하여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작했다.
- ④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들이 입고 있는 멋진 옷을 본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유행에 뒤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옷을 샀다.
- ⑤ 잡지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구 배치 방법'이라는 기사를 읽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병이 날 것처럼 생각되어 가구를 다시 배치하였다.

55. ㉠~㉥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56. 위 글에 쓰인 **짝**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짝꿍 (ㄱ) 둘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 또는 그 중의 하나. (ㄴ) 둘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의 각각을 세는 단위. (ㄷ) '배필(配匹)'을 속되게 이르는 말. (ㄹ) 비할 데 없이 대단하거나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 (ㅁ) 대구(對句)를 이루는 각 글귀.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자들이 최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언어학의 한 분야 중에 인지언어학이 있다. 인지언어학은 “인간 마음의 본질,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언어’, ‘마음과 몸’, ‘문화’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언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의 형식과 의미 사이를 도상성(圖像性), 지표성(指標性), 상징성(象徵性)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도상성은 인지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기호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 사실적 유사성이 존재할 때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면, ‘페랭이꽃’은 초립동자들이 쓴 모자 ‘페랭이’를 닮은 꽃이므로 그 명칭과 지시물의 관계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이 외에, 두 개념이 연합되어 합성될 때, 사람의 선행적 경험이 어순에 반영된 경우에도 도상성이 나타난다. 즉, A와 B 두 요소가 합성될 때, 어순이 ‘AB’로 굳어져 합성된다. 이러한 고정된 어순은 언중의 인지적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즉, ‘부모’, ‘남녀’, ‘부부(夫婦)’ 등 성별의 어순에는, 두드러지고 힘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쪽보다 앞자리를 차지하여 고정된 어순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도상성의 일종이다. 또한, 쉽고 단순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어렵고 복잡하고 부정적인 요소보다 선행하여 어순을 이루게 되거나, ㉡‘나에게 가깝거나 혹은 ‘자아’ 중심의 개념어가 선행하여 어순을 이루게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나에게 가까운 요소를 중심으로 지각하고 파악하려는 인지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언어는 지표성을 지닌다. ‘지표’는 대상 그 자체를 모방하지는 않지만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대상을 연상시키는 기호를 의미한다. 굴뚝의 연기는 누군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고, 풍향계는 바람의 방향, 수은주의 높이는 기온의 높낮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방문객이 왔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한 언어에도 지표성이 드러나는데, 우리 주위의 범위 안에 있는 사물을 가리킬 경우에 해당된다. 이를테면 말을 할 때의 공간과 시간적 위치는 다른 개체의 공간과 시간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점이 된다. 따라서 ‘여기 있을게’, ‘지금 만나자.’라는 문장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에 의존한다. 이른바 ‘여기, 저기, 거기, 앞, 뒤, 오른쪽, 왼쪽’과 같은 지시 표현은 상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지표의 일반적 성격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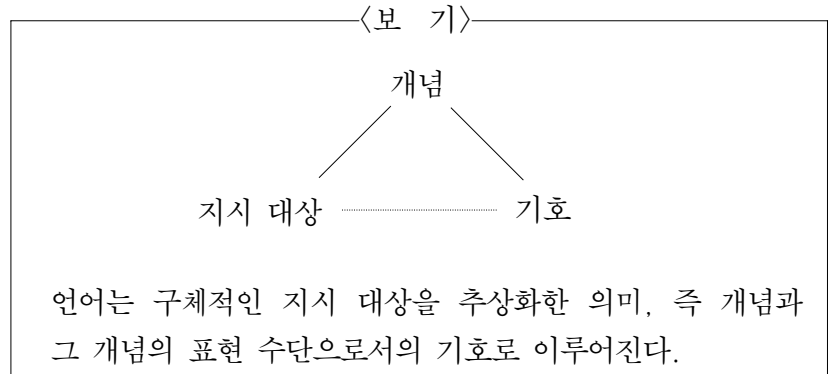
끝으로, ㉢상징성이란 기호의 형태와 의미가 문화적 관습이나 규약, 규칙에 의해 자의적 관습적으로 결합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은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을 ‘나무’라 한다. 즉 나무는 식물의 일종인 것이다. 이 나무를 [namu]라고 발음하고, 영어권 언중은 [tri:]라 하고, 중국 사람들은 ‘木’이라 쓰고 [mu]라 발음한다. 이는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고, 단지 상징성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어떤 사물에 대한 구체적 말소리는 실제 나무와 어떠한 유사성도 없지만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언중은 그 소리를 듣고 나무를 연상한다. 그런데 ‘나무’라는 언어 기호는 특정한 개별적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 전체가 지니는 공통적 특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는데 이를 언어의 상징성이라 한다.

요컨대, 언어란 기호의 형태와 의미 사이에 도상성, 지표성,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각각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뒤섞여 기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상은 지표적인 측면을 함께 가질 수도 있고, 동시에 지표도 도상적 성격과 상징적 성격을 함께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57. 위 글과 관련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언어의 지표성은 무엇인가?
- ② 인지언어학의 중심 개념은 무엇인가?
- ③ 언어의 상징성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④ 언어의 도상성을 이루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가?
- ⑤ 언어의 도상성, 지표성, 상징성은 서로 어떻게 기능하는가?

58. <보기>의 내용에 맞게 위 글의 □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개념	지시 대상	기호
①	木	실제 나무	식물의 일종
②	木	식물의 일종	실제 나무
③	실제 나무	식물의 일종	木
④	식물의 일종	실제 나무	木
⑤	식물의 일종	木	실제 나무

59. ㉡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수달이 지나간 모래밭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 ② ‘신부 신랑’이라 하지 않고 ‘신랑 신부’라고 한다.
- ③ ‘꽃’은 실제 존재하는 꽃 전체의 부류를 나타낸다.
- ④ ‘악선(惡善)’이라고 하지 않고, ‘선악(善惡)’이라고 한다.
- ⑤ 한국은 ‘한일 월드컵’으로, 일본은 ‘일한 월드컵’으로 부른다.

60. ㉠과 ㉢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식과 의미의 범주성
- ② 형식과 의미의 연관성
- ③ 형식과 의미의 창조성
- ④ 형식과 의미의 논리성
- ⑤ 형식과 의미의 구체성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